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4. 18.(화) 10:00~12:00
-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 ▶ 참 석 자
 - 구의원 : 서○○ 서대문구의원, 주○○ 서대문구의원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 조○○(위원장), 김○○(부위원장), 이○○(위원), 김○○(위원), 김○○(위원), 조○○(위원), 김○○(위원)
 - 의회사무국 직원 및 관계자 : 권○○(의정팀장), 김○○(주무관), 문○○(주무관), 김○○(주무관), 송○○(주무관)
- ▶ 안 건
 1. 독일, 오스트리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일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권○○ 공무해외출장 심사위원회 성원보고 및 심사안내) 다음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성원보고 및 심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제4조에 따라 구성된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공무국외출장 심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대한 심사 및 의결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23년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2개 팀을 구성하여 국외출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유럽팀은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 예정이고

일본팀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각각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 출장함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장 목적 및 출장자의 적합성

둘째, 출장 목적지, 방문 기관의 타당성

세 번째, 출장 기간의 타당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2건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실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 출장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도 서대문구 의회 법무 국외 출장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회의 의정팀장님이 성원보고와 심사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출장 팀별 대표 의원이 국회 출장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럽대표이신 서호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분들도 많고요 근데 아까 파이팅 넘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유럽 중에 대표는 아니고요 발표자입니다. 대표자는 이용준 운영위원장이고요. 이제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7명이 독일/오스트리아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결정한 것은 일단 독일이라는 곳이 분단 상황일까 이런 것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지방자치가 잘 발달 된 곳이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유럽연합에서 선도적인 국가로서 탈탄소 정책 모범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물론 경비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여기에 주관사가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라고, 아이콜라라고 하는 곳인데, 지방자치발전소가 어떤 곳이나 하면 한 10여 년 전부터 당을 초월해서 열심히 활동하던 지방의원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이 단체가 계속 회원들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아마 2019년 정도부터 지방의정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의원들의 어떤 욕구를 해외 연수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관사가 일반 여행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독일 팀 해외 연수 진행을 위해서 사전 교육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가량 굉장히 잘 준비된 우리 주관사, 지방자치발전소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을 사전 연수 전에 사전 교육으로서 독일 문화원에 요청을 해서 독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 방문 국가에서 주요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독일 문화원을 통해서 사전 교육을 받는 시간을,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 정도 한 번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지방자치를 들여다 보겠지만, 핵심 주제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유럽의 탈탄소 드라이브가 계속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 할지 알아보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자립하고 있는지, 폐기물처리,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같은 데 많이 돌아보려고 하고, 열병합 발전소 방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또 탄소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곳들을 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을 세우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주민들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그 시설 주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또 어떤 공동체를 이어가는지 이런 어떤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참여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해서 물론 중간에 바르샤바를 거치지만, 모두 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로, 이게 긴 시간 여행하는 게 아니라 짜임새 있게 버스로 이동하면서 지역을 10군데 정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은 견학 방문지와 공식 방문지로 나뉩니다. 공식 방문지는 그야말로 그 기관하고 정식으로 약속을 해서 공식 브리핑을 받고 그러는 것이 공식 방문이고요. 그리고 견학 방문은 공식 방문은 아니지만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가이드와 현지 통역가를 거쳐서 충분히 잘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짜였습니다.

방문 1번은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 복합단지, 그래서 여기가 버려진 구화물역사부지를 공용 개발한 것인데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후 스트라스부르 수변 공간 개발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봉마을이라고, 마을 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마을이거든요. 이를 우리 서대문의 에너지 자립마을 접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슈바르츠발트 축구장 이라고 축구장이 있는데 여기 축구장 지붕 전체가 태양광패널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슈튜트가르트의 환경보호청을 공식 방문하고, 바이센호프 주거단지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건축가들이 설계를 한 주거 단지인데, 여기는 에너지 자립도 있지만 예술과 산업이 합치되어 잘 꾸며놓은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뮌헨의 생태 신도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로젠하임의 열병합발전소를 방문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스글란

재활용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혐오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예술 작품의 경제를 끌어 올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슈퍼텔라우 소각장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한 번 나가는 게, 나가서 쭉 한 7박 9일인데, 살펴본다고 해서 뭔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럽이 그리고 특히 유럽의 대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국가적 정책,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허락을 한다면 분단 이후 어떤 상황이랄까요. 이런 분위기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이런 연수를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원이 공무 출장에 대하여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자료를 보면서 개별사항에 대해 하나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별로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 출장 일정 중에 공식 방문지 4곳이 어디어디인지?

(서○○ 의원) 친환경 에너지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슈튜트가르트 환경청, 뮌헨 로젠하임 열병합 발전소, 팔츠부르크 막스글란 재활용 센터입니다.

(조○○ 위원) 그러면 슈퍼텔라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서○○ 의원) 여기는 이제 예술 작품을 될 정도로 이제 관광 상품화 될 정도로 개방 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관광 형식으로 보는 것과 의원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냐 하는가 하는 거죠.

(서○○ 의원)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공식 방문은 거기에 기관장과 우리가 컨택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 서대문 의회와 거기 기관 간의 공식 만남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식 방문이고 다른 견학 방문은 현지의 가이드와 현지 가이드는 물론 거기에 안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이드들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이드들의 설명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책임자하고의 어떤 공식 약속은 안 돼 있다.

(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건 알지만 상당 부분이 어떤 공식적인 기관과 기관에 그거에 의해서 방문하지 않고 이런 관광 형식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 가이드가 아니라는 거는 관광 가이드예요.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을 질문하고 자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이지 견학이 아니라.

(서○○ 의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지방자치발전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나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현지 가이드가 누구인가 하면 그 현지의 대학 교수 그래서 이제 교수가 현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관광이 아니라는 거죠.

(조○○ 위원) 그런데 현직 교수가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자료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교수가 설명하는 거 하고 공식적으로 주는 내부 자료하고는 너무 달라요

(서○○ 의원) 내부 자료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서○○ 의원) 물론 이제 그 소각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자료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까지 받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소각장이 작동하는 원리와 그리고 반대를 뚫고 거기서 주민들과 같이 어떤 협의 과정을 오늘 거쳐서 그런 예술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소각장으로까지 되었는지의 과정을 우리가 지방 의원을 알 수 알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은 현지 교수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위원) 그리고 여기 방문하는 곳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사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다 숙지를 했습니까?

(서○○ 의원) 사전 교육에서 했습니다.

(김○○1 위원)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외 출장을 가고 사전에 이렇게 챙기고 특히 지방자치 발전소라는 데서 굉장히 너무도 많이 했지만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프랑크푸르트의 한 유기농 회사에 가서 제가 열흘 동안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독일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철저하냐면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본다는 거 자체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그런 디테일한 그런 보고서보다도 느낌을 받고 와야 의원들이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가는 거지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짜임새를 볼 때 굉장히 잘 짰다.

이대로 하고 이것만 하면 정말 이거는 또 제가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외에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보고 오셔야. 세계는 넓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1800년 대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라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우고 그리고 끝에 보니까 부다페스트를 봤는데 부다페스트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다페스트에서 하루 정도는 자면서 부다페스트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거기에 관광에서 뭘 해야 또 이렇게 좀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오시죠. 하여간 계획은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김○○4 위원) 아이콜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곳이고 예전에도 저도 같이 공부를 했던 곳이라서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진짜 업그레이드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다 재정건설위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좀 행정복지위원님들도 계시니 구체적인 부분을 좀 하나 대안을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김○○3 위원) 설명을 하시면서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탄소중립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에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 드린데 거기를 가서 분단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를린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받아라... 부다페스트 가시면 맛있는 것도 좀 잘 드시고..

독일 가시는데, 가서서 정말 우리가 친환경도 대단히 중요한데, 통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정을 좀 변경해서 분단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7~80개 국가를 다닌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스케줄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 아마 우리 선생님 대표님 말고는 다 저기 해 주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김○○2 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짜여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 가서 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0년대 60년대에는 독일에 비행기가 없어서 힘들게 돌아다녔고.. 그런데 이 일정을 보면 너무 주제도 무겁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제3자 나중에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걸 했나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변마을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홍제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굳이 이런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천이나 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행정관청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독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라면, 독일은 건축 측면에서 보자면, 간판, 보도블럭, 가로수 이런 걸 절대로 대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럭 한 번 하면 20년 이상 절대 하수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현장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바닥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냐. 저는 주민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또 그러니까 간판에 난리도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고. 지붕의 태양광 많이 하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 많은 걸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녀오신 다음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할 건데. 제목을 좀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 아주 면밀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서대문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초점이 다르게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 위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 둘이 같이 이렇게 상존하는 이런 그런 상태니까. 아파트 쪽에 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짚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번에 생태도시를 가신다면서 착안점에 유진상가 재건축이나 열병합발전소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착안점을 유진상가재건축이나 스위스 그랜드 호텔부지 재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연수 자체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에 관한 사전 계획들이 있을테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계획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범위도 넓지 않고, 또 우리가 꼭 가서 봐야 할 곳을 했으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국가였지만 요즘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핵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도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형편이니까.

이런 문제 제 생각에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고 지금 유럽 쪽은 앞으로 또 더 떠오르는 그런 국가들이야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미래를 택 할 것이냐 그냥 여태까지 좋았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따라 해야 되겠다. 그런 오케이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나라 앞으로의 어떤 나갈 방향 이런 거에 좀 맞춰서 기관을 선택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럽 7박8일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서○○ 의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힘들다는 각오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하고 가는 수가 딱 절반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 분명히 평소의 어떤 정책적 신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정을 통해서 토론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랄지 하나의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아마 장단점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저도 가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토론을 한번 너무 무겁지 않게 잘 이끌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4 위원) 기준표에 있는 것 중 전혀 모르는 게 있어서. 저기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의원님들 없으신 거죠.

(서○○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4 위원) 그리고 지금 방문쪽하고 기관 섭외가 완료되신거죠?

(서○○ 의원) 네

(김○○2 위원) 직원 4명이 가는데... 직원들이 어떤 보조를 하는 건가? 행정부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서○○ 의원) 저기 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전 구성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2 위원) 직원이나 전문가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텐데...

(서○○ 의원) 가이드랑 그리고 또 환경과 물론 환경팀도 있지만 일단 본 사람들은 또 순환 보직이기도 하고. 그 현지 가이드가 거의 교수급 혹은 거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

(김○○2 위원)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있는데. 공무원이 같이 해석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김○○2 위원) 향후에 갈 때. 그런 어떤 애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렇죠 전문가와 혹은 정책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장 국장급 그리고 같이 사는 방법도 사전에 좀 생각해 볼 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1 위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직원들이 4명이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니, 옛날 같았으면 참 따라가신 분들이 힘들었어요.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지말고, 공무원들도 앞에서 보조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좋겠지만, 똑같이 풍성하게 느끼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싶다면, 그 나라의 술을 마셔야 합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가방은 자신이 들고. 같이 여행하는 수행공무원들을 동등한 인격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한테도 예의를 갖추길 바랍니다.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서호성 의원님과 단장 이용준 의원님을 믿겠습니다.

(서○○ 의원) 네.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그렇게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 출장자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냐는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자기 생업과 연관이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서○○ 의원) 그 심사 기준이 사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위원) 어쨌든 저희는 의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 업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런 항목으로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여쭙보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구성원들이 재정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만 있는데...

(서○○ 의원) 원래 서대문구 외에는 두 개 위원회만 있습니다.

(이○○ 위원) 네. 그렇죠.

(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기완 위원님하고 이 분이 방문기관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이걸 제기를 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더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 끝났다면 아무런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심의할 이유가 문제가 제기됐다 제기된 문제가 어떻게 다시 재조정이 된다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기술적으로 기관 방문이 수정될 수 있나요.

(김○○) 지금 기관 섭외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관 섭외가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조정을 한다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티켓팅도 완료가 되었고...

(김○○1 위원)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내년에 꼭 갈 텐데. 이거는 하기 전에 좀 여유 있게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김기현 의원님이 어떤 제의를 하면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대책이 돼야지 지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정이 굉장히 강행군입니다. 5시간 심지어는 7시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강행군을 하는데 아 아까 우리 정서하고 유럽 정서하고는 틀립니다. 개네들은 5000년 된 문화를 갖고 있고 보도블럭 하나를 보더라도 오래 갑니다. 우리랑 정서가 다릅니다. 그런 정서가 틀려요. 우리 조 의원님하고 좋은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보고 느낌만 있다면 느끼는 것만 해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은 이만큼이라도 품을 팔아야 뭘 많이 본다고 거의 8일 동안에 이렇게 다니시면 건강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충길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 좀 양해해 주시고.

(조○○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전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도 한 번 보류를 했어요. 지난번에 협조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로 하고 완료되면 다시 제출하겠다는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다 이걸 이제 끝내놓은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다녀오세요’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의 위원들이 심사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다음 번에는 시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 번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시행을 해서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전국적으로 최초의 그런 시행을 한 의회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다녀오고 난 뒤에 보고서를 지난번에도 그냥 통합 보고서를 했어요. 저는 통합 보고서는 통합 보고서를 해야 되지만은 개인 보고서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는 시간이 다 달라요 아까 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도 당의 시각이 다른 것처럼 개인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보고서를 쓰다 보면 이게 뭉뚱그려져버려요.

개인의 어떤 의견이 제대로 안 묻어 나와요 보고서에.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옛날 우리 같이 따라가는 행정직 우리 직원들이 후배님들 이야기는 대충 듣고 행정직 의원들이 보고서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개인으로 보고서 다 써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심의 기준에 우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개인별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다 본 이후에 보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면 그것이 대한민국 기초에서 최초였고 좋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관내 각 기관장에게 공문을 띄워서 그런 공유를 하니까 보시죠 하고 정식 초대장을 보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개인 보고 하고 와서 보고회 하는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 조충길 위원님의 어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예산으로 가는 거죠. 예산으로 어쨌든. 그런데 구의원들은 나름 굉장히 뽀뽀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좀 더 건문을 넓혀서 뭔가 의정 활동을 서대문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취지도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되는 거지만 또 지방의 구의원에 대한 어떤 현실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별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적어도 A4 두 장 이상의 개인별 소감문을 첨부하는 양식 이런 방식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의원 개인별의 어떤 그런 의견과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 위원) 보고서 양식을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각자가 자기가 느끼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개인별로 그것을 그대로 처리해서 하는 걸로.

(서○○ 의원) 구의원들의 이런 역량이나 머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김○○4 위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카테고리 의원님들이 이제 나누셨잖아요. 보고서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쓰신 내용을 집어넣어서 보고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서○○ 의원) 그리고 아까 이제 저도 오늘 심의위원회 갑자기 사실 발표자가 되기는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약간 준비하면서 아니 만일 우리 심의위원분들이 이거 허락을 안 해주고, 뭘 변경하면 어떡하지 대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조례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아무튼 30일 전에는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좀 정비해서 기간을 충분히 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사실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섭외가 된 데를 물론 거기에는 이제 캔슬을 할 수 있죠 물론 욕을 먹겠지만 근데 다른 거를 더 추가해서 아마 섭외를 못하겠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어떤 일상들, 보도블록, 간판, 거리, 가로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최대한 현지 전문가 현지 교수들이 같이 하니까 당신들 생활은 어떠냐 또 복지 시스템은 어떠냐 이런 것을 충분히 토론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금 연관된 것들을 좀 수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원래 계획을 했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를 방문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따라서 이제 현장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지금 이 현장하고 어떤 대비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현장은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차이에서 뭔가 학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역으로 서대문구를 나중에 생각하고 이제 지금 방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방문지에서 배울 수 있는 뭔가를 미리 계획을 하시니까 거기에 가보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배운 걸 우리가 차라리 여기를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 플랜을 조금만 더 조정을 하셔서 가지고 그러면 보고서를 차라리 쓰기 편한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지는 거잖아요.

(서○○ 의원) 충분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이제 새롭게 써야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렇게 쪽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날 그날 조금씩 메모만 해도 보고서 쓰는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 위원) 수변감성도시사업 및 서부 경전철 등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결함을 위해서 수면 마을을 가는 게 아니고 수면 마을을 가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어디에 갖다 붙이면 되겠구나 참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김○○2 위원) 이 행정에 말씀드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에 예를 들면 호텔 설계를 가지고 와서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가게 되었는데. 여행사하고 아니면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걸 예약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그쪽 관청하고 연락을 인터넷으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다. 너무 여행사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이런 데를 의존한다고 할까요. 그분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리고 그분들이 이런 이런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서대문구에 준다는지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체성이 없어서 이번 기회로 결정이 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다음 번에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뭘 보고 싶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사전 독일/오스트리아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사전 교육을 충분히 정말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가서 알고 가는 것만큼 또 보일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 이걸 꼭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꼭 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관 방문 일정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여행사에서 잡았습니까.

(김○○) 여행사에서 기관소개까지 다 해주셨어요.

(위원장) 그런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셔야 해요. 공식적으로 하시고 당당하게 갔다. 오세요. 뭘 그냥 죄짓는 것도 아닌데 죄짓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의회에서 할 일은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스트리아 한번 가봤는데 첫 느낌이 야 이 나라는 예술가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풍경 자체가 예술이니까 우선 거기를 갔다 온 것과 안 갔다. 온 건 차이가 상당하죠. 그렇지만 그걸 보고서를 쓰기에는 좀 그렇듯 당당하게 갔다오시고 우리 모든 위원들의 우려는 외유성 여행이 아니냐 그리고 가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일탈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발표자 포함.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보고서도 좀 잘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정에 없는 할슈타트도 여기도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는 그게 현장지라고 하는데 보고서를 쓰시려면 좀 깔끔하게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마무리 다하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위원)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 중에 기관과 그거를 어디 어디 지방 자체 연구소에 거기서 했다고 그랬는데

(김○○) 방문 요청은 저희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 발전소를 통해서 독일의 a라고 하는 기관과 실제로 의회가 계약이 된 거예요. 저희 의회와 그쪽 현지 기관과 그렇게 된 거죠.

(조○○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거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심사를 충분히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좀 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인 방금 말씀은 또 페이스북에 또 여기 가서 공부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거 좋아가지고 올려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팀 심사]

(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부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출장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다양하게 있지만, 뒤에도 설명해 드리고요. 먼저 저희 출장자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서대문구 의원은 총 6명입니다. 이동화 의장, 이종석 부의장,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행정복지위원, 이경선 재정건설위원, 주이삭 재정건설위원 그리고 의원들 수행을 도와줄 직원 세 분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출장을 갑니다. 총 4박 5일을 가고, 출장지는 일본 오사카와 동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일정은 먼저 김포에서 출발해서 간사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탄포포의 집>, <하나아트센터>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둘째 날에는 <카마카츠 마을>, 셋째 날에는 <나기정 마을>을 방문하고 여기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도쿄 지역에서는 안전이나 방재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간다천 환상 7호선 지하조정지, 마지막 날에는 방재 공원을 방문하고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료 13쪽에는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해나 태풍과 관련해서 방재시스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출산 문제, 장애인 복지 등의 이슈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심의자료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저희 팀은 총 3번의 회의를 통해 일정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장 기획을 위한 회의, 두 번째는 각자 방문하고 싶은 기관을 정해서 논의하는 회의,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여행사와 함께 전체적인 일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추가적인 피드백을 통해 일정을 세부 조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출장 일정을 확정하고 이번 심의위에 보고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경비도 13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의장, 부의장님이 속해 계셔서 두 분의 경우는 그 급에 맞게 추가적인 출장 경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의원님들은 규정에 따라 직원분들과 같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외 출장으로 책정된 경비가 인당 3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

산 낭비 없이 4박 5일 동안 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자 해서 전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국외 출장을 다녀온다는 점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관의 현황과 선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 방문하는 탄포포의 집, 하나아트센터는 장애인 종합복지지원센터인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장애인분들의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제로 웨이스트와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동시에 구 차원에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카미카츠 마을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지역으로 알려져서 여기에 가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행정복지위원장이 제안한 나기정 마을인데요.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8명, 서울시는 0.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관련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나기정은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다천 환상7호선 지하 조정지라는 곳인데, 사실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곳입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제안했던 곳인데 양천구의 빗물저류배수시설의 모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고 싶은 이유는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하 배수 터널 건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것 말고 실제로 관계자분들이 생각하는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재공원인데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안전 관련 분야에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방재시스템이 좀 충분치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에서도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더 내실이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관 방문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전문 업체와 통역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덴마크랑 스웨덴 말뚝에 갔을 때는 여행사를 끼지 않고 저희 의원들과 직원들이 직접 일정을 짜고 현지에서 통역이 가능한 분을 섭외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코펜하겐과 말뚝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이 간단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방문지 간 이동이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인원이 탈 수 있는 수준의 크지

않은 버스를 대절해서 주로 이용하고, 중간에 도시 간 이동에는 신칸센을 탑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세 번의 회의 중 여행사와 같이 회의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하여 도쿄에서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경험을 해볼까 합니다. 공식방문 이후의 여유 시간에는 틈틈이 동네 골목을 걸어보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험해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도시를 더 잘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4박 5일의 귀한 국외 연수를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1 위원) 지금 보고하신 주○○ 의원님께서서는 일본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주○○ 의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김○○1 위원) 저는 71년도에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50년 차이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핍박받고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알아야 이깁니다. 적대시하면 점점 멀어지고 일본을 모르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 의원님께서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살살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어떤 질서라든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고 느껴보세요. 신칸센을 타더라도 우리 KTX와 비교하고 보고서 쓸 때도 굉장히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세요.

제가 4년 전에 서대문 재향군인회 차원에서 일본 도쿄만 4박 5일 동안 갔습니다. 그때도 왜 갔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안보도 상대방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가보지도 않고 일본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쿄 전쟁기념관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을 느꼈습니다. 기관 방문도 필요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속을 보고 와야 해요. 4박 5일 동안 정말 일본 사람의 뿌리가 뭐고, 어떤 교육 정책을 갖고 있고 그런 자료를 사전에 더 수집해서 많은 걸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 저는 주○○ 의원님이 지난번에 국외 출장 가셨을 때의 보고서에 비해 지금 엄청 잘 만들어진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요즘은 국내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주제들이 다 너무 좋아서 직접 가서 보고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작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적용해야지 하는 식의 접근만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가령 저출산 문제 같은 것은 사실 해답이 없잖아요. 좀 더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국외 출장을 가기 전에 미리 스터디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고,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하면 좋겠

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4 위원) 다섯 기관에 방문하실 건데요. 기관 대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서대문구가 나라현에 공식적으로 방문 요청을 하신 것 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주○○ 의원) 제가 절차적으로 공문이 오갔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4 위원) 그러면 나라현의 어느 국과 이야기를 나눴고 도쿠시마 현의 어느 국과 이야기를 나눈 건가요?

(송○○ 직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가시고 싶은 기관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 요청을 해서 방문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이 된 거죠. 자료에 있는 것처럼 탄포포의 집, 하나아트센터, 카미카츠 마을에서는 기관 종사자가 설명을 해주기로 했고 나기정 마을은 나기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간다청 환상7호선 지하 조정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에서 과장님이 나오시기도 했고요. 도쿄 임해 광역 방재공원에서도 그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김○○4 위원) 네 좋습니다.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방문한다는 그 자체가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일본에 가야하는 상황에 대해 염두하고 출장지를 정하신 건가요?

(주○○ 의원) 일단은 이 공무 국외 출장을 기획하는 시점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지금과 같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 하필 일본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발굴한 주제와 각각의 방문 기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기관이 해당 이슈를 활발하게 잘 해소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기관을 선정한 것이지 굳이 일본이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정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4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주○○ 의원) 외교 문제는 어찌 됐든 중앙정부의 이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차별점을 배우기 위해서 국외 출장을 가는데 국가적인 문제가 쟁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예시를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사실 정치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영남과 호남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사람이면 대구에 가면 안되고, 대구 사람이면 광주에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의 이슈가 있으니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가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

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출장에 정치적·외교적인 이슈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김○○4 위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 의원) 그럴까요? 그건 너무 정파적으로 보시는 거 아닐까요?

(김○○4 위원) 정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조카도 2명이나 일본에 살고 있고 저희 언니는 4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지금의 시점이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식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주○○ 의원) 그런가요? 저희 공무 국외 출장이 외교 이슈가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부산시랑 갈등이 있으면 부산에 안 가야 하고

(김○○4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의원) 부산시랑 갈등이 있다고 부산의 기장군을 못 가고 이러는 건가요?

(김○○4 위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핀트가 빗나갔었는데. 그래서 감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 의원) 그렇죠.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도 정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런데 저희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자체가

(김○○4 위원) 정파가 아니고요. 국민 정서의 문제입니다.

(주○○ 의원) 국회에서 그 문제가 정파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4 위원) 총 다섯 군데에 가시는데, 하루에 한 군데씩만 가세요. 그렇죠?

(주○○ 의원)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고요. 아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속을 보고 오라는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는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일본에는 키포드 전용 주차 구역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최근 관련 이슈가 많은데, 도쿄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해볼까 합니다.

(김○○4 위원) 혹시 일본에 가시는 의원님 중에 이곳을 가셨던 의원님이 계신가요?

(주○○ 의원)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시다. 우리 의원들은 3선 의원 한 분 계시고 대부분이 그사이에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일본에 가본 경험은 여기 있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2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자주 갑니다. 아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젊은 층이 지금 제주 관광을 안 가고 일본에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국가 단위로 관광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는 코스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도 외진 곳이에요. 신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외진 마을과 조그마한 식당에 찾아가는지. 의원님들이 가서서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이라든지, 특히 주차 단속이요. 서대문구청 교통과에서 매일 카메라를 달고 주차 단속차가 다니는데, 일본은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도로 밖에 세워놓은 차가 없어요. 재개발에 대해서 이슈가 되잖아요. 일본은 재개발을 이렇게 쉽게 민간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재개발이 되고 몇 년 안에 도시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안 바뀔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분들이 일본에 가셨을 때 그런 것도 좀 보면 좋은데. 너무 이게 뭐랄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왜 가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거창한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유럽팀 심사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을버스도 요새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은 마을 단위에서 관광객한테 마을버스 이용권을 준다는지, 할인 티켓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미 일정이 다 결정되어서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심사에서 보류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한 것으로

(김○○2 위원) 여하튼 제가 주민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뭘 배워와야겠다고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3박 4일, 4박 5일 해외 연수 가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 전부 외국 나가야 하게요? 눈에 안 보이게 서서히 접목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많을 테니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의원) 신촌 활성화 차원이나 위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2 위원)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도 현대화가 많이 됐는데 신촌에는 오래된 건물도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현이라고 하나요? 행정이라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주○○ 의원) 알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주차 단속,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마을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거 맞죠? 4

박 5일 동안 1일 1기관으로 공식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가능할지 아닐지는 여행사와 관련 행정부서와 협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위원) 조금 전에 김○○4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원님께서 정파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4 위원님과 정파적으로는 반대 성향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짚고 싶어요. 국가적인 이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 계획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저도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미운 일본에게도 배울 게 있고 가서 배워야 해요. 그것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때와 시기가 가려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지도자의 때와 국민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도자의 때와 국민의 때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 뜻을 이해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처음에 의도한 바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되고, 하지만 분명히 염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구민이 얘기를 해도 자신 있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럼 내용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말이죠. 위원장님. 독일하고 유럽이 7박 8일인데 1인당 350만이거든요?

(위원장) 더 내죠. 유럽은 더 낼 겁니다.

(조○○ 위원) 그러면 유럽은 나머지 비용은 자비로 하는 겁니까? 의회 예산이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걸로만 가는 것이죠? 예. 그건 이제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저출산 관련하여 방문하는 일본의 나기정 마을은 인구 6천 명이 안 되는 산속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구 6천 명이 안 되는 산속 마을과 대한민국 서대문구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서 좋은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사실 일본 하면 구석구석의 현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유럽도 그렇지만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봐도 세부적인 뒷얘기까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보다는 오히려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이 더 많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주○○ 의원) 나기정 마을은 최근 기시다 총리가 방문해서 이 곳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했던 마을이기는 하거든요. 인구 6천 명의 숲속 마을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동 단위로도, 동보다 더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기정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인터넷 보면 사실 일본에 대해 많이 나오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글로 적힌 내용, 인터넷 영상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만약에 한 분과 차를 마시고 대화하다 보면 속 깊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직접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말씀도 주셨는데 나기정 마을도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이라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랑 생활 방식이 제일 비슷한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가봄 직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해 원래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유성일 거면 애초에 가지도 않고, 만약에 갔는데 외유성이 되면 저희 출장비 다 반납하겠다고 초선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라 절대 허투루 다녀오게끔은 안 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해주신 말씀을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인 상황에도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저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외교적인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일본 말고는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제가 최근 소방이나 방재 관련해서 관심이 생겨서 일부러 자격증도 따고 공부해서 갑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국가적 이슈로 인해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저는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 서대문 구민분들께서 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과 또 다른 어떤 외교적인 부분을 잘 구분해서 봐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조○○ 위원) 이 말만 하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정파적’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심사 자리에서는 좀 잘못하신 거예요.

(주○○ 의원) 정파적이라는 표현은 국회나 언론에서 어느 당이나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말할 때 하는 표현인데,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적인 이미지나 인식에 관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구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말

씀드렸던 것인데,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 좋아요.

(김○○2 위원)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는데 너무 무게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맞춤형으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토목이라든지, 도로가 꺼졌다든지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마 24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내에 다 복구하잖아요. 특히 힘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압력을 넣으면 서너 시간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 다 복구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복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원인부터 조사하고, 또 거기 담당 공무원이 거의 그것만 해요. 평생 부서를 안 옮깁니다. 인사이동을 빈번하게 안 하는 대신 그 사람을 계속 계장, 과장까지 승진시켜줘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있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건설 담당을 하더라도 승진이 돼요. 그런 좋은 점을 배워야 하고.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땅이 꺼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정말 원인을 조사한 다음 개보수를 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서 땅 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신칸센을 타고 서너 시간 가시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 가서 서너 시간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왜 없나 하는 아쉬움이 저는 남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구청 푸른도시과에 지적했던 게 있는데, 길가에 가로수를 심을 때 우리는 획일적으로 심잖아요. 일본은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해요. 이제는 좀 섬세하게 우리 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행정에 접목도 시키고 나중에 보고회 할 때도 주민들한테 애깃거리가 되고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다녀오세요.

(주○○ 의원) 일정을 정할 때 각 의원들이 관심사를 하나씩 제안해서 최대한 반영하려다 보니 이런 일정이 잡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당연히 궁금한 것도 많고 행정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과 방금 말씀해 주신 싱크홀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겠다고 하시니 잘 보고 오시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유성이냐,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저도 비교 시찰을 많이 했는데,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모 의회에서는 추리닝 입고 왔다. 등산복 입고 왔다. 이런 부분에 현지 분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공식적인 방문이니까 기본 복장은 정장을 하셔야 하고 당당하게 갔다 오세요. 분명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보고도 철저히 해주

시면 서대문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 위원) 의원 개인별로 보고서 쓰시고 주민 보고회도 해주시고요.

(주○○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보고회도 반드시 개최하겠고요.

(김○○2 위원) 인터넷에 보면 구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게 쉬는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요. 그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식 활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는 정말 자제하셔야 해요.

(주○○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게 우리 의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자제해주세요.

(주○○ 의원)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실무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